

名實相符한 原子力先進國으로 발돋움

＝韓國核燃料(株)＝

1. '80年代의 回顧

지나간 '80년대는 이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국면에서 짧은 기간에 국내외에 많은 충격적인 변화가 교차하여 회오리바람으로 몰아친 시기였다. 정치의 부침이 무상하였듯이 경제도 '80년대 초 마이너스 성장과 무역적자, 외채의 누증 등 첩첩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곧 이를 반전하여 3년 연속 12% 이상의 고성장과 무역흑자, 물가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음으로써 선진국의 문턱을 넘보는 도약을 이룸과 함께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속의 한국으로 승승장구하다, '80년대 말의 막이 내리기 직전 기어코 다시 수출부진과 고물가, 고임금, 저성장, 투자위축과 생산성 하락 등의 깊은 수렁속에 떨어져 '90년대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원자력업계의 '80년대는 이러한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착실하게 성장하여 어려운 몫을 훌륭히 해 내었다고 자부할 만하다. '70년대 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전력

을 생산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의 원자력 발전기술은 기초연구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발전에 필요한 Hardware와 Software를 모두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자원빈국이라는 악조건에서 에너지자립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원자력발전기술자립의 마스트플랜이 세워진후 그 첫번째 과제인 핵연료 국산화의 과제가 한국핵연료주식회사에게 맡겨져 이를 착수한 것이 '80년대 초요, 성공리에 달성한 것이 80년대 말이다. 즉, 한국핵연료(주)에 있어서 '80년대는 사상 최초의 핵연료제조기술자립과 전량 국산화 완성이란 자랑스러운 업적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영원히 기억될 연대이다.

2. '90年代의 展望

'90년대의 원자력업계도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영광 3, 4호기의 건설을 통해 아직 이루지 못한 나머지 기술분야를 대부분 자립하고, 후속기가 속속 건설되면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원자력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러한 반면 정치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한 다양한 목소리들의 표출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의 당위성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인사의 반원전 주장이 더욱 거세어져 순조로운 계획의 추진에 큰 장애로 대두될 것이다.

개방시대의 대응방식에 따라 우리 업계는 원자력발전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이해를 넓히는 계몽과 능동적 홍보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자립이라는 숭고한 국가적 과업의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다.

3. '90年度 經營目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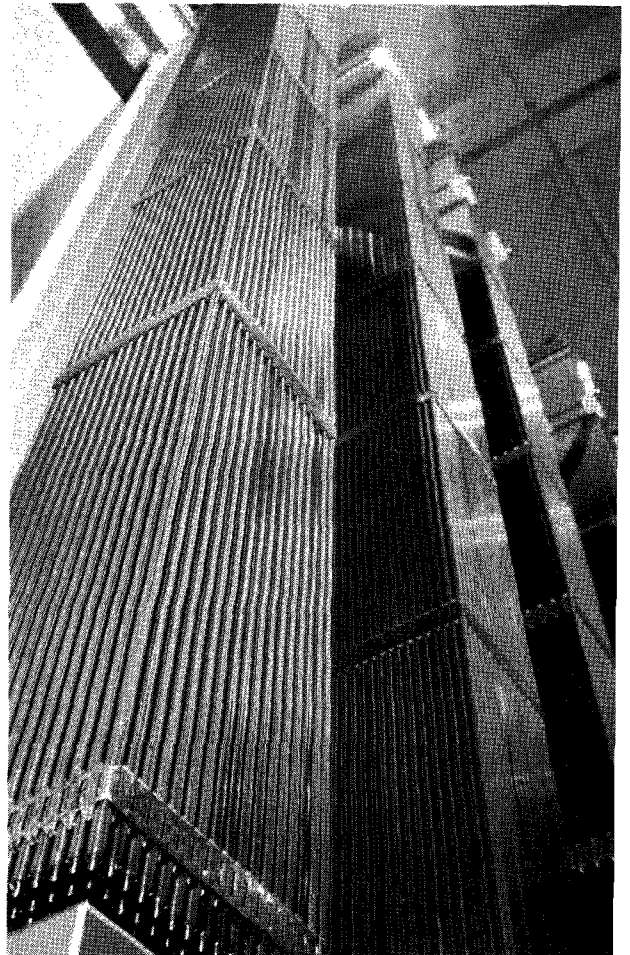
기간의 공장건설체제가 전면적인 양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핵연료주식회사는 올해 경영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핵연료의 경제성과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둘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의 단계적 확대와 노사협조를 통한 조직활력의 제고, 셋째 핵연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넷째 원가절감과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무구조의 건실화, 다섯째 원자력발전사업의 국민적 이해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두고 다음과 같은 경영목표를 설정하였다.

(1) 생산목표량의 100% 달성과 적기공급

국산핵연료의 완벽한 품질보증과 순조로운 생산, 공급은 한국핵연료(주)의 존립이유를 한 마디로 압축한 지상과제이다. 올해의 공급예정량은 작년 보다 1개 영역분이 늘어난 7개 교체영역분 340다발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 전직원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 생산수율의 향상

이것은 원·부자재의 가공손실률 감소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핵연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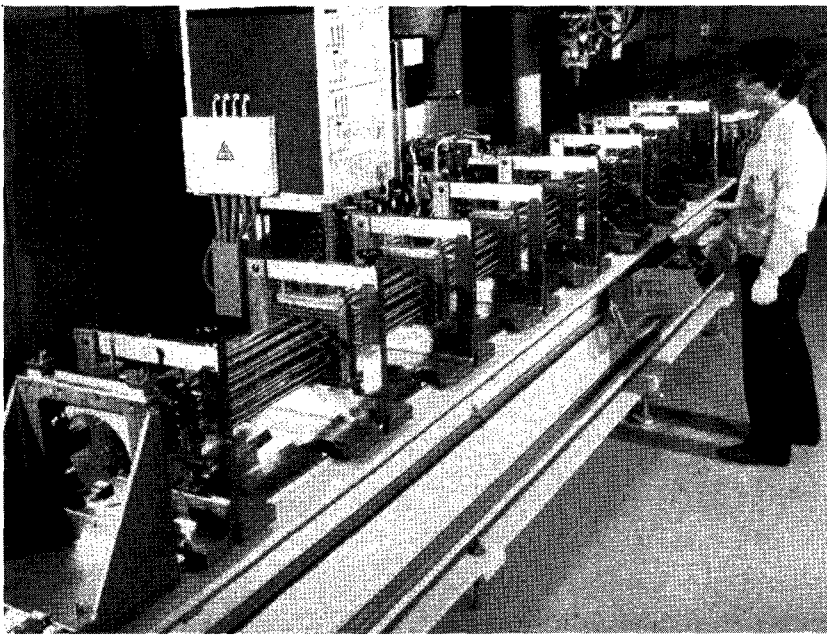


해의 실적과 올해 공급계약에 반영된 손실률을 감안하여 소결체, 피복관, 지지격자의 수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경영효율제고

상업생산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품질향상과 경제성 개선을 통해 우리 핵연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로서 경영효율의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추진코자 한다.

① 경영관리부문에서 목표관리와 심사분석제도를 도입·실시할 것이다. 이는 양산체제에 걸맞는 경영기초자료를 축적하여 주요 경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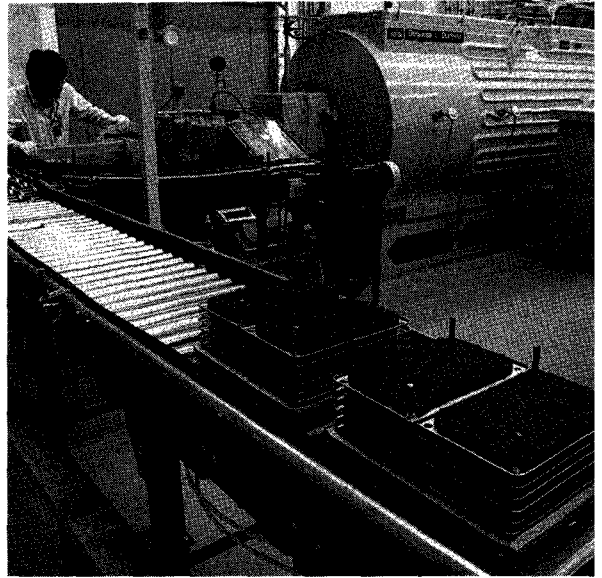
표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경영목표의 달성여부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직원들에게 목표의식을 고취하여 부진사항과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이자, 주요 경영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각 부문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목표설정 및 관리절차의 결정과정에서 각 부서의 광범위한 참여로 추진할 것이다. 매분기별 또는 호기별로 세부목표와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하고, 그 결과를 활용, 우수부서 표창 등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여 성취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② 생산부문에서는 제조공정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작업중단, 작업자의 오류를 방지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원가를 절감할 것이다.

③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산 핵연료의 완벽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경제성, 생산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핵연료 제조



기술을 개선하며, 나아가 핵연료 주기기술을 축적해 나갈 것이다. 연구개발 관리체계 및 절차를 확립하고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사업은 에너지자립이라는 국가적 임원을 이룩하는 관건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추호의 차질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무의 기강과 질서를 세우고 화합분위 조성 등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